

제일 기쁜 소식

2001년 4월 어느날 이른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양어장을 찾으시였다.

아늑한 산골짜기에 계단식으로 펼쳐진 드넓은 양어장의 양어못마다에서는 칠색송어들이 꼬리를 치며 옥실거리고있었다.

규모있게 새로 건설된 양어못들과 공원처럼 아담하게 꾸려진 양어장의 이채로운 풍경을 정겹게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팎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시려고 그토록 심려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소원을 풀어드릴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고 만족해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양어야말로 수익성이 높은 대단히 경제적인 생산분야일뿐 아니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민물고기를 넉넉히 먹일수 있는 가장 빠른 방도이라는것이 실천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이날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태양절을 맞으며 얼마간의 칠색송어를 인민들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면서 칠색송어를 맛본 인민들이 장군님의 은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정말 잘했다고, 듣던중 제일 기쁜 소식이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우리 장군님의 가장 큰 기쁨은 인민들에게 실지 혜택이 차례지고 인민들이 기뻐한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이라는것을.